

## 광주 군공항 이전하려면 아파트 4만채 지어 팔아라?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기부대양어' 방식을 규정 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공항 이전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가 새 군공항 조성, 이전 대상지 주민 지원, 종전 부지 정비, 이차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종전 부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전 대상지 주민 지원 등 관련 비용이 증가할수록 종전 부지의 고층·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해 군공항 이전이 자칫 구도심 쇠락 가속, 도시 기능 분산, 아파트 과잉 공급 등 광주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역시 광주시가 아닌 중앙정부 주도로 군공항 이전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전 지역에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거해 이전 지역에 대한 혜택을 늘리게 되면, 종전 군공항 부지의 개발 강도를 더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군공항 이전 대상지로 불망에 오른 전남도내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관계부처인 국방부는 뒷집만 지고 있고, 광주시는 추가 지원 카드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전 추진 지자체 새 공항 조성·주민 지원 등 막대한 비용 감당  
종전 부지 고층·고밀도 개발 불가피 ... 구도심 쇠락 등 부작용  
특별법 '기부대양어' 방식 바꿔 중앙정부가 이전 사업 진행해야

시가 추가 지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6년 제출해 국방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전건의안을 수정해야 하는데 다 개발 규모에 논란이 일수도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전건의안에서 광주시는 군공항 부지 820만 평에 아파트 4만1000호를 지어 5조7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

다. 5조7600억원에는 신 군공항 조성 4조 1000억원, 종전 부지 정비 8300억원, 이전 대상 주민 보상비 4500억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금융비용 38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10만5000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를 조성해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의미다. 시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주거·상업·업무·테마파크 등으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업체나 부동산 자본 등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파트를 팔아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앵커(핵심) 시설이나 공공기관 유치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군공항 이전 부지에 인구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신도시가 생길 경우 광주 도심의 지각 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의 증가 없이 새로

운 대규모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구도심만이 아니라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택지지구의 쇠락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도시 기능의 분산, 도시 내 불균형 심화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지역대학 한 교수는 "광주의 외연 확장이 기존 구도심의 쇠락을 초래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또다시 군공항 이전을 위해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군공항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각 지역에 필요한 시설 및 단지를 조성하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낮춰주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방사광가속기 나주 오나

1차 서류·발표 평가 통과 ... 충북 청주와 최종 경쟁

입지 선정 빠르면 오늘 발표

전남도가 정부의 다목적(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대상지 공모에서 1차 관문 격인 서류·발표 평가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3면>  
빛가람혁신도시(나주시 산포면)를 후보지로 내세운 전남도는 최종 후보지에 함께 오른 충북 청주(오창)와 방사광가속기 구축 우선협상 지역을 놓고 최종 경쟁을 벌이게 됐다. 최종 입지 선정은 이르면 7일, 늦어도 8일 발표될 전망이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안 유성구 인터시티호텔에서 진행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발표평가에서 전남도는 충북과 함께 후보지 2곳으로 선정됐다. 과기부는 유치 희망 자치단체별 세부 평가 점수,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평가는 유치 희망 자치단체의 발표, 부지 선정 평가위원들의 질의응답, 서

류 심사 등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전남지사,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 당선인, 강인규 나주시장도 발표 평가 현장에서 응원하며 힘을 실었다.

1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은 7일 전남 나주와 충북 청주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평가를 한 후 우선협상 대상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기본요건(25점), 입지조건(50점), 지자체 지원(25점) 등 3분야에서 100점 만점으로 부지 선정 평가를 진행,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고 사전에 공지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028년 운영을 목표로 2022년부터 국비 8000억원 등 1조원대 사업비를 투입해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및 부속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방사광가속기는 빛의 속도로 전자를 가속해 방사광을 얻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물질의 기본입자를 관찰할 수 있다. 이른바 초정밀·초대형 현미경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또는 구축 중인 가속기는 5기로, 영남권과 충청권에 쏠려있다. 학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해외 주요국이 지진 등 재해 위험으로부터 대형국책연구시설을 지키려고 분산 배치하는 것과도 동떨어진 정책적 결정이며, 국토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흐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30도 벌써 여름? 광주와 전남지역 내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돈 6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 푸른길공원에서 시민들이 시험가동 중인 쿨링프로그길을 걸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이재용 "자녀에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

삼성 부회장, 대국민 사과  
무노조 경영 종식 선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대국민 사과를 통해 "삼성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법과 윤리를 엄격히 준수하지 못해 국민께 실망과 심려를 끼쳤다"며 반성했다. 이어 "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도 부족함 있었고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면서 "이 모든 것은 저희의 부족함 때문이고 저의 잘못"이라며 사죄했다.

이 부회장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삼성의 현안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우선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사과했다. 그는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 많은 질책을 받아 왔다"며 최근 승계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 부회장은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며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다"



이재용 부회장

고 다짐했다. 특히 그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선언했다.

이 부회장은 노사 문제와 관련해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변호사 재개업 인사

저는 최근 한국전력공사 상인감사위원직을 마치고 법무법인 무등종합법률(구성원 변호사 오수원, 최두진, 임화영)의 소속 변호사로서 재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법시험 32회에 합격하여 25년여 동안 광주광역시·전라남도·각 시군구청의 고문변호사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국제청 이의신청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고, 광주지방변호사회장, 포럼광주 상임대표 등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바랍니다.

2020. 5. 7.

변호사 이정희 배상

사무실 : 광주 동구 중법로 25번길 16, 4층(지산동)  
TEL. 062-226-7900  
FAX. 062-226-7901

Mercedes-Benz Certified

## 메르세데스-벤츠가 또 한 번, 새롭게 보증하다

완전히 새로워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Mercedes-Benz Certified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 국내 수입차 최대 21개 전시장 보유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증대
- 국내 최초 세계적인 품질 평가기관 TÜV 검수 및 인증 완료
- 1년 / 2만km 무상 보증 수리 프로그램 (1년 / 2만km 선드래 적용)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Mercedes-Benz

##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수완동)